

사설

원불교 女교정원장의 선출

원불교 교정원장이던 전통불교 각 종단의 총무원장이 해당된다. 창종 88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원불교에서 이번 그 교정원장에 처음으로 여성교무를 선임, 국내 종교계 전체에 참신한 본보기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역사적·사회적 환경들이 만들어 온 불교 전통 중에는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관행과 계율이 있어 오래전부터 이의 해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표적 예가 비구, 비구니스님의 차별이다.

비구니스님이 폄하되고 있는 대표적 계율인 비구니 팔경계 역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아닌 경전 성립 당시의 사회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전통이 갖기 쉬운 경직되고 잘못된 관행과 계율은 하루빨리 고쳐야 함에

도 전통 불교종단에서의 개선 움직임은 왜 그리 느리기만 한가.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만 해도 상징성이나 영향력을 지닌 교단 내 최고위 행정직에 비구니스님의 진출은 전적으로 배제돼 있다. 이는 남녀평등이 구현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도 한참 뒤떨어진다.

평등사상의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불교가 미래를 이끌 종교임을 자임한다면 가장 먼저 비구 비구니스님의 차별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학문적 성취도나 수행의 깊이 등 그 성과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다.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은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 활용함으로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림문화재 연구원에 거는 기대

불국사에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개원했다. 불교문화유적을 조사, 발굴할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에 관한 연구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추대된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되찾아 영원히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연구원의 설립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70년대 이후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문화에 대한 보호와 전승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계종단에서는 자체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봉도사는 성보박물관을 설립하여 불교문화재의 수집과 보호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이에 뒤질세라 불국사에서 발굴과 현장조사, 그리고 불교문화의 대내외적 확산과 홍보에 주력할 전문연구기관을 수립한 것이

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불교문화의 비중과 역할에 비교하면 불교계가 기울이는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 없는 환경과의 대립과 갈등, 극복과 조화의 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에 문화는 집단과 민족에 따라 각각 사·공간적인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마침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한다. 문화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이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세계의 조류에 발맞추어 불교문화를 통해 인류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자 한다.

미우스 클릭 한번으로 한국불교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의 목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정립)는 10월 20일

'한국 불교관계 논저 종합목록'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사이트(www.sutra.re.kr)의 주요사업 콘텐츠에 연결된 '불교학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한국불교관련 서적·논문 등 인터넷검색시대 열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서적·경전 등 20여종 7만3,269편

불교계 사이트와 링크서비스도 계획

이 곳에는 1892년부터 2002년까지 110년 사이에 국내에서 출판되거나 발표된 불교관계 단행본, 논문, 학위논문 등의 논자가 집대성돼, 제목과 편·저자명, 출판사, 발행년도, 출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지 경전 교리 역사 인물 사찰 의식 종파는 물론 문학 예술 교육 사회복지 원불교 종교학 일반 인문학 타문화학 다도 등 20여 종류 7만3천269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번 검색서비스는 이미 출간된 바 있는 책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그대로 상제 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왔다. 78가지 상세 주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기존 연구 성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검색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자들이 자료에 손쉽게 접근해 불교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번 서비스 개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불교학자들은 지난해 불교관련 논저의 목록에 대해 주제어 연결을 미리 준비하는 행식을 채택함으로써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향후 2002년 이후 간행된 논저에 대한 목록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와의 링크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립 스님은 "책이 출간된 후 주변에서 CD로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그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자들이 자료에 손쉽게 접근해 불교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번 서비스 개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불교학자들은 지난해 불교관련 논저의 목록에 대해 주제어 연결을 미리 준비하는 행식을 채택함으로써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통합대장경목록과 디지털 불교문화지도의 일부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등 불교관련·문화재의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_yj@buddhapia.com

해외한국사찰 신도100명 미만 70% 주 포교대상도 84%가 동포들 위주

조계종 조사, 교재·교육프로그램 개발시급

해외의 한국사찰 수가 15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주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해외 148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포교 현황조사에 따르면 10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찰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의 사찰이 교포들을 주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들 사찰의 활동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국내의 기대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회신 받은 50여 개 사찰의 응답을 중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가 신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부족

(30%)과 교육 및 활동지도인력 부족(20%)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교입문자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교육과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76%의 사찰에 신도회가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법회를 바탕으로 한 법문과 기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지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52%가 한국불교를 알리는 외국어 자료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빈약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다.

반면 76%가 앞으로도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해 해외의 진출 스님들의 원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수재민돕기성금 2억4천만원 모금

조계종 총무원과 본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사들이 1달여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태종 매미 수재민 돕기 캠페인'이 모두 2억3천9백54만원을 모금하고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룡사 1억원, 조계사 1천3백만원, 조계종 중앙종회 1천80만원, 봉은사·도선사·16교구본사 교운사 각 1천만원, 한마음선원 7백만원, 충남비구니회 남부자부 5백만원 등 사찰과 신행단체, 불자들의 동참이 잇따랐다.

조계종은 모금액 중 1억원을 이미 정부에 기탁하는 한편, 조만간 수해 피해 규모가 컸던 10여개 사찰을 중심으로 모금된 수재의연금을 피해사찰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고침 443호 2면 사설 '창간 9주년의 다짐' 마지막 문장이 전산 착오로 일부 빠졌습니다. 4면 '명상과 과학' 기사 중 "지난 9월 13-14일...따라붙는다"는 문장은 중복돼 나갔습니다.

장운·영담·종상스님 새이사 선임

동국학원, 이사회 열고 후속임원인사

동국학원 임원진 16명(이사 13명, 감사 3명) 중 6명의 얼굴이 새로 바뀌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은 10월 14일 제194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 9명과 감사 1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11월 22일로 4년 임기가 끝나는 녹원, 고산, 법장 스님의 후임으로는 각각 장운(동국학원 법인 사무처장),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 종상(경주 불국사 주지) 스님이 새로 이사에 뽑혔다. 현성 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장)과 성오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은 유임됐다.

역시 임기 만료되는 서돈각대

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사 후임으로는 정상영 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이 선임됐고,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류주형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유임됐다.

사회로 공석 중이던 권노갑 이사의 후임으로는 황광주 동국대 명예교수가, 감사 지명 스님을 대신해서는 범어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이 각각 새로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한편, 지난 8월 사무부처장 서리로 임명됐던 성국 스님은 이날 정식 승인을 받았다.

권형진 기자

몽월대중사 16일 열반

태고종 승정(조계종의 원로회의 의원에 해당) 몽월 대중사가 10월 16일 오후 5시 55분 서울 동작구 분당 극락정사에서 열반했다. 법랍 77세, 세수 83세.

영결식은 20일 극락정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승정원장으로 엄수했다.

박봉영 기자

해인사선덕 운범스님 입적

해인총림 선덕 운범스님이 10월 15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법랍 46세, 세수 73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영결식은 18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산중장(山中葬)으로 엄수했다.

운범스님은 1967년부터 해인사 장경각 장주 소임을 맡은 후 15년간 팔만대장경을 지켜왔으며, 1983년부터는 해인총림 선덕으로 극락전에 주석해왔다.

한명우 기자



중국임제종 칠탑사파 한국불교 임제선학원 宗丈 추대식 及 전수국제금강보살대계 수계법회



慧泰堂 竹山 대종사 宗丈 추대식

한국불교 임제선학원은 오는 11월 2일 慧泰堂 竹山 대종사 종장 추대식을 병행합니다

추대위원장 석혜변

봉행위원장 석마정

- | | |
|------------------|--------------------|
| 대만 임제종 본산 방장 석정심 | 중국 임제종 본산 방장 석기상 |
| 국제정공상인법자연의회장 석심무 | 홍콩 법자연의회장 석혜인 |
| 한국 법자연의회장 석혜변 | 말레이시아 법자연의회장 석혜선 |
| 중국 법자연의회장 석혜통 | 인도 법자연의회장 석혜생 |
| 싱가폴 법자연의회장 석혜적 | 자카르타 법자연의회장 석혜원 |
| 인도네시아 법자연의회장 석혜행 | 오스트레일리아 법자연의회장 석혜해 |

전수국제금강보살대계 수계법회

삼화상

- | | |
|------------------|------------------|
| 전계아사리 도성 대장로(한국) | 득계아사리 정심 대장로(대만) |
| 갈마아사리 우각 대장로(한국) | 교수아사리 죽산 대장로(한국) |

존증사

- | | | |
|------------------|------------------|------------------|
| 수경아사리 해암 대화상(한국) | 수경아사리 동춘 대화상(한국) | 의지아사리 보광 대화상(한국) |
| 수경아사리 상봉 대화상(한국) | 수경아사리 가상 대화상(중국) | 의지아사리 심무 대화상(대만) |
| 의지아사리 혜천 대화상(한국) | 의지아사리 성해 대화상(한국) | 의지아사리 우향 대화상(한국) |
| 의지아사리 보암 대화상(한국) | 의지아사리 지암 대화상(한국) | 의지아사리 해각 대화상(한국) |

대회장 진공 대화상

- | | | | |
|-------------|-------------|------------------------|-------------|
| 부대회장 마허 대화상 | 부대회장 유공 대법사 | 개당화상 성해 대화상 | 배당화상 도운 대법사 |
| 유나 진공 대법사 | 벽암 대법사 | 혜성 대법사 | 견성 대법사 |
| 자광 대법사 | 법장 대법사 | 인레 석마조 석미음 석종일 석도운 석혜감 | |

▶ 일시: 11월 2일 11시~12시 ▶ 장소: 서광사

▶ 일시: 11월 2일 13시~16시 국제보살대계 호계위원회 위원장 석마정

■ 총무행정원 : 서울 광진구 중곡 2동 124-7 Tel. 02)444-3918 Fax. 02)447-5291